

2024

●● YTN 방송기술직 신입사원



YTN은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2024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3명의 방송기술직 신입사원을 선발하였다.

서류전형부터 필기시험, 실무전형, 현장실무능력평가, 임원면접까지 길고 긴 대단원의 막이 내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의 떨어지는 순간! 당당히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YTN 신입사원 3인방을 만나본다.
2024년 1월, 부푼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한 김부현, 김보민, 고영욱 신입사원은 각자 부서로 배치되어
열심히 방송제작과 시스템에 대해 배우며, YTN 그리고 방송기술과 함께 새로운 여행을 시작했다.

3명의 솔직한 현재 심정과 입사 과정, 목표를 알아보면,
신입사원만의 발랄, 순수, 도전 정신을 느껴보자~!



김보민 YTN IT시스템팀 신입사원

“뛰어난 제작 역량을 갖춰
‘테크니컬 엔지니어’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2024년도 YTN 방송기술 직무로 입사하게 된 김보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IT시스템팀에서 수습으로 근무하며, YTN의 보도정보시스템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 방송기술 직무를 택한 이유

평소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여,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재학 도 중 학교 선배를 통해 방송기술 직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연하게 꿈꾸던 일이 바로 방송기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관련 학과를 복수 전공하며 방송기술 직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이 직무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재미있었습니다. 방송 신호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것을 예쁘게 다듬는 과정, 제작된 신호가 시청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 등 모든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방송 기술 직무로 일하게 된 지금 역시도, IT 분야의 지식을 더 깊이 공부하며 큰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 입사를 위해 했던 노력과 경험

방송기술 직무를 준비하며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실무 현장을 경험해보고자 장비 렌탈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케이블이나 카메라, 마이크 등을 설치하며 케이블, 커넥터, SDI 신호, NDI 신호, 해상도 등 기초적인 기술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론적인 공부를 위해 관련 자격증 공부와 스터디를 병행했습니다.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저만의 강점을 만들기 위해 네트워크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방송과기술’을 읽으며 논술을 작성하고, 기술 키워드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은 필기 전형뿐만 아니라 이후 면접 전형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입사 과정 중 기억에 남는 것

이틀 동안 출퇴근하면서 진행되었던 현장실무능력평가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하루는 과제를 수행하고, 또 다른 하루는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과제를 수행할 때는 선배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시기도 하고, 발표할 때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선배님들께서 집어 주시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전형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이 전형을 경험하며 YTN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회사라는 것을 느꼈고, 그런 문화 속에서 저 자신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방송기술직무를 준비를 위한 조언

본인만의 강점을 찾고 자신을 믿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방송기술 직무를 준비하며 가장 아쉬웠던 것은, 무조건 현직자가 유리할 것이라는 지레짐작으로 스스로 자신감을 억눌렀던 것입니다. 적어도 신입 채용에서 만큼은 신입으로서의 패기와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방송기술인으로서의 목표

입사 후 OJT 교육 중에, 디지털센터의 에디터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에디터님은 YTN의 강점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OTT 서비스에 납품하는 꿈을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IT 관련 업무를 배우고 있지만 이후 제작 부서도 경험해보며, OTT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QC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해보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테크니컬 엔지니어로 성장해 YTN이 뉴스뿐만 아니라, 뛰어난 제작 역량을 갖춘 회사라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 배우고 싶은 지식, 취미

먼저는 지금 배우고 있는 YTN의 보도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술들을 자세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을 파악하고,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어떤 기술을 사용하여 구현되었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파고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적으로는 음악을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작곡을 배워서 가까운 미래에 개인 음반을 발매해 보는 것이 제 소박한 꿈이기도 합니다.



고영욱 YTN 기술관리부 신입사원

“차세대 방송시스템을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엔지니어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 첫날, YTN에 입사하게 된 고영욱 사원입니다. 현재 기술관리부에 배치되어 다양한 업무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방송에 사용하는 비디오 서버 및 송출 장비 유지보수와 영상 제작을 위한 NLE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입사원이라 정신없지만, 입사 전부터 경험해보고 싶었던 부서라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방송기술 직무를 택한 이유

외향적인 성격으로 어릴 때부터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 동적인 업무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방송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대학에서 방송기술을 전공하면서 다양한 관련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논리적 시스템을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방송장비를 운용하는 기술 엔지니어를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 입사를 위해 했던 노력과 경험

첫 번째로,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래도 방송기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방송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의를 갖고 공부할 수 있었고, 그렇게 노력했던 과정이 추후 자격증 취득 과정이나 면접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졸업 전 방송사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 사항이나 인턴 경험 등 정량적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계획한 목표만큼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미리 계획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취업 과정에서 숨 쉴 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기술 분야에 관한 생각이나 고민을 자주 했습니다. 중계차 인턴 과정이나 이전 직장에서 익힌 기술적인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듯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과 기술', 'KOBV' 견학으로 접하게 되는 기술 적용 방안이나 개선 사항을 자주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도 YTN에 입사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입사 과정 중 기억에 남는 것

2일간 출퇴근을 하며 현장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본 선배들의 열의가 기억에 남습니다. 평가 기간에 선배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화 속에서 선배들의 방송기술 분야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나 전문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YTN에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공고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면접에 참여한 응시자에 불과했지만, 미래의 후배로 생각하듯 지원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을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마음이 느껴져 감사했습니다.

●● 출근 후 본인의 일상

가장 먼저 기술관리부 일일 업무 회의에 참석하여 오늘의 업무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매일 선배들과 함께 주요 방송장비가 있는 곳을 점검합니다. YTN의 경우에는 하루 대부분의 편성이 생방송이기 때문에 장비 이상 유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비의 상태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신호의 흐름이나 장비 특성을 익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10 총선 방송 준비가 한창이라 특별 생방송 준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꽃'이라고도 하는 선거방송을 위해서 인프라 설계나 기술 검토에도 참여하게 되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우고 싶은 지식, 취미

입사 이후, 최근의 방송장비는 물리적인 1대 1인 통신이 아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통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이론을 전반적으로 공부할 계획입니다. 천천히 공부 과정을 밟아가면서도, 그 안에서도 저에게 잘 맞고 관심이 생기는 분야를 찾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취미로는 평소에 풋살과 같이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운동을 선호하는 편인데,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운동이나 취미를 배우고 싶어 수영을 취미생활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 방송기술인으로서의 목표

차세대 방송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을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방송 기술 분야의 이슈인 IP 전환이나, AI를 이용한 방송 고도화 등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방송에 접목될 수 있는 다양한 ICT 분야를 찾아 관련 기술을 공부하고 실제로 적용까지 할 수 있는 엔지니어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김부현 YTN 제작기술부 신입사원

“YTN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전문 방송기술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도 1월, YTN 공채 24기로 입사한 김부현입니다. 현재 제작기술부에서 음향 엔지니어 보직을 맡아 프로그램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선배들에게 배우고 방송에 적응하며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YTN 신입사원으로서 ‘방송과기술’에 글을 기고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 방송기술 직무를 택한 이유

우연히 부조정실 내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감독님들의 모습이 담긴 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이외에도 조명을 받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분의 노고를 통해 방송이 이뤄진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후 방송 엔지니어 직무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선택하며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 입사를 위해 했던 노력과 경험

학부 시절에는 다양한 방송 관련 활동을 했습니다. 교내 연극 동아리에서 음향 엔지니어를 담당했고, 여러 행사에서 다양한 방송 엔지니어 역할을 했으며 학과 홍보 콘텐츠 영상의 기획, 편집, 후반 작업까지의 전체 워크플로우를 총괄하면서 방송제작 과정에서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졸업 이후, 2년간 회사에 다니면서도 방송 엔지니어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회사 일과 동시에 공채 시험공부를 병행하면서 자격증도 함께 취득했습니다. 그 외에도 ‘방송과기술’을 놓치지 않으며 챙겨 보았고, 스터디를 통해 준비했던 필기와 논술 시험은 면접 전형에서 많



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KOBА 박람회'를 참관했던 점은 방송 동향과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 입사 과정 중 기억에 남는 것

2일간의 인턴십 평가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평가로 진행될지 예측불허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미션들을 헤쳐 나아가야 했습니다. 물론 심적으로 지치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처음 마주하는 사람과의 협력, 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끈기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저희의 질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님들이 먼저 다가와 끊임없이 알려 주시고, 도움 주시려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곳임을 느꼈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YTN을 꼭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 방송기술인으로서의 목표

제작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미디어 난립 시대에 제대로 만들 줄 아는 전문 방송기술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방송제작 워크플로우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방송기술인으로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상을 받아 YTN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 배우고 싶은 지식, 취미

꿈꿔왔던 방송 업무이니만큼 더욱 잘 해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섭니다. 방송 첫 업무를 제작기술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영상, 음향 제작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장비를 실수하지 않고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 관련 이론 공부를 더욱 충실히 해서 제작시스템의 품질 관리를 결정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체력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PT를 시작했습니다. 악기에도 관심이 많아 기타나 베이스를 배워볼 계획입니다.

●● 입사 후 업무를 하며 기억나는 경험

현재 음향감독 선배가 DAW로 <더 싱어> 프로그램 믹싱 작업하는 과정을 어깨너머로 배우고 있습니다. 보도전문채널에서 음악 콘텐츠를 믹싱해 볼 기회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YTN이 뉴스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입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고, 이는 음향 엔지니어로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반증일 것입니다. 아직은 미흡한 방송기술인이지만, 하루빨리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목소리를 직접 믹싱을 해보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